



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막판 총력

- 연내 마지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7차 협상, 미국 샌프란에서 열려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, 이하 산업부)는 11. 5.(일)~11. 12.(일)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제7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* IPEF :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

이번 협상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6차 협상 마무리 후 열흘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, '23년 마지막 공식협상이 될 전망이다.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참여국*들은 필라1(무역), 필라3(청정경제), 필라4(공정경제)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.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.

* 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피지

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“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성과가 도출되면 역내 규제 투명성 향상을 통해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, 우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인태지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, 조세 투명성 향상 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”된다고 밝히며, “최대 성과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언급했다.

담당 부서	인태통상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이경 (02-2100-1370)
		담당자	사무관	노정림 (02-2100-1376)

【 참고자료 : IPEF 7차협상 개요 】

- 일시·장소 : 11. 5 (일) ~ 11.12(일), 미국(샌프란시스코)
- 참석자 : 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피지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(차관/차관보급) 및 실무 협상단
 - 정부 대표단 :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고용노동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토교통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법무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국무조정실, 식품의약품안전처,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, 금융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관세청, 조달청, 산림청 등 20여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
- 협상 의제 : 무역(필라1), 청정경제(필라3), 공정경제(필라4) 3개 분야
- 협상 구성 : 분야별 실무협상 및 수석대표회의

< 참고 : IPEF 개요 >

명칭	•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(IPEF :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)
참여국 (14개)	• 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피지
분야 (4개)	• 무역(필라1) : 美 USTR 소관 • 공급망(필라2), 청정경제(필라3), 공정경제(필라4) : 美 상무부 소관 • 4개 분야는 각 하나의 독립협정 구성
분야별 협상참여국	•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분야 모두 참여 중 (인도는 무역 불참 / 공급망·청정경제·공정경제 참여)
협상 경과	• 출범('22.5월)→ 각료선언문 발표('22.9월)→ 1차협상('22.12월)→ 특별협상('23.2월)→ 2차협상('23.3월)→ 3차협상('23.5월)→ 4차협상('23.7월)→ 5차협상('23.9월)→ 6차협상('23.10월)→ 7차협상('23.11월)